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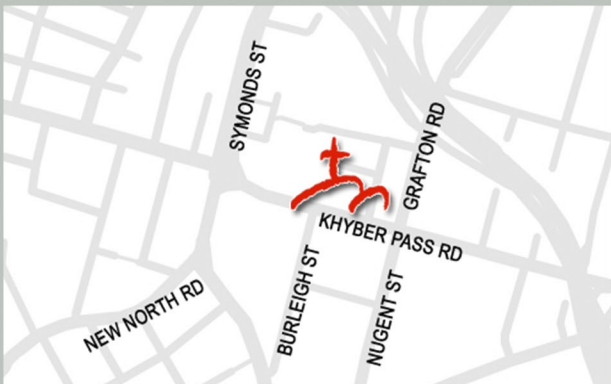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오늘은 교회 창립 20주년 주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지금까지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긴 모든 성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와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웃 교회에서 온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2019년 하반기 성경 정독 두 번째 주간입니다. 정독으로 말씀 묵상의 깊은 울림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 범위는 창세기 22-42장까지입니다.
3. 1여성교회 주관 거리 찬양 전도가 오는 8월 3일 (토) 오후 3시에 아오테아 광장에서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찬양 연습, 차량봉사 필요)
4. 다음 주일은 권사회 기도 주일입니다. 기도하는 기쁨과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5. 창립 20주년 맞아 기념 볼펜을 준비했고 성도들의 글 모음집 '갈보리 공동체의 민낯'을 발간했습니다.
6. 작년 성탄 감사 헌금과 창립 20주년 기념품 비용을 절약한 헌금을 합해 이지양 (베트남), 이형식 (캄보디아) 선교사에게 보냈습니다. (축하 영상 참조)
7. 청소년부 수련회에 여러 모양으로 협력한 성도께 감사드립니다.
8. 추억의 사진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모두 맞추면 상품을 드립니다.
9. 사경회 동안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은성 목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월 사역일지 및 예배안내]

- 19(금)-21(주일) 말씀 사경회
- 21일 (주일) 창립주일
- 31일 (수) 공동체 주관 수요 예배 (차드)

INFO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창립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시편150:1-3	청년부
예배로부름	64장	인도자
찬송	사도신경	다같이
신앙고백	259장	다같이
찬송		다같이
대표기도		박덕철 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 20:19-21	인도자
찬양대찬양	너희들은 택함 받은 족속 -- 나무십자가 찬양단 날 지으신 주님	
설교	섬김의 원리	이은성 목사
찬송	320장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445장	다같이

축도 김용환 목사

2,3부 순서는 주보 안쪽을 참고해주시시오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기도	김은희 집사
성경봉독	마가복음 3:24-26
설교	[분정하면 망한다]
	이태한 목사
찬송	545장
주기도	다같이

[7/8월 기도 순서]

- 7월 28일 (주일) / 박병민 장로
- 7월 31일 (수) / 김자경 권사
- 8월 4일 (주일) / 손조훈 집사
- 8월 7일 (수) / 현석호 장로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금주기도	창립주일 연합
다음주일	모지선 자매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7월 예배 봉사자]

- 예배 안내 / 김철재, 허영순
-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 주차 안내 / 김교섭, 민광호
-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김민경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07/21  
21권 29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2부 순서/ 축하 잔치 Celebrations

암송과 찬양	----- 예수님은 나의 왕	----- 유아부
Bible and Worship	----- Jesus is My King	----- Sunday School (Pre-school)
찬양과 율동	----- 하나님 찬양, 우리들 고백	----- 아동부
Worship and Dance	----- Praise the LORD, Our Testimony	----- Sunday School
영상	----- 갈보리 20년 발자취	----- 맡은이
Video	----- 20 Years of Calvary Church	----- Media Team
축사	----- Rev. Doug Lendrum(St David's Church)	
Congratulatory Speech	----- Rev. Doug Lendrum (St David's Church)	
공로패 증정	----- 민광호 집사	
Recognitions	----- Deacon Min	
축하 영상	----- 이형식 선교사 (캄보디아)	
Video Message	----- Missionary Lee (Cambodia)	
스킷 드라마	-----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 청소년부
Skit Drama	----- God So Loved The World	----- Youth
찬송	----- 320장	----- 다같이
Hymn	----- 320	----- All
축도	----- 김용환 목사	
Benediction	----- Rev. Kim	

3부 순서/ 식사 교제 Fellowship Lunch

St David's 교회에서 오신 Doug Lendrum 목사를 비롯하여 여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지만 함께 드시며 교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 warmly welcome the congregation from St David's Church and Rev. Doug Lendrum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Please join us in fellowship as we celebrate our anniversary with shared lunch after the service.

PRAYER

1.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2. 분별력 있는 삶을 살고 현실의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열방으로 흩어진 선교사들이 강건하며 사역에 지혜가 넘치도록.

창립 20주년을 맞으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지 20년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합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강산이 두 번 바뀌었는데 우리 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하며 또 앞으로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정기적인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통해 꾸준히 신앙 성숙을 위한 훈련을 해왔으며 또 매년 바누아투로 선교를 떠남으로 교회 안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각 남녀 선교회를 통하여 모일 때마다 성숙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교적인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무엇인지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각 공동체 모임을 가지면서 그 공동체 이름처럼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과 그 지역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으며 기도했으며 공동체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며 기쁨과 사랑을 깊이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조차도 신앙인들을 자신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애써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에서처럼 박해가 없는 편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은 기본적인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경계가 있고 그것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는 있어도 우리의 궁극적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창립 20주년을 맞으면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과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매주일 그 교회에서 1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매주 200명의 선교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현석호 장로

금주의 암송말씀

디모데전서3:15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